

문학의 공간적 사유, 그 계보와 지평

장 일 구 (전남대)

< 목 차 >

- | | |
|-------------------------|----------------------------|
| 1. 문제들 | 4. 스토리에서 디스코스로, 사실에서 가상실재로 |
| 2. 근대 문학의 공간 형식 | 5.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인과에서 은유로 |
| 3. 장소에서 공간으로, 실체에서 구성체로 | 6. 지평 |

국문초록

문학에서 공간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조셉 프랭크가 근대 문학의 가장 특징적인 자질로 꼽은 ‘공간 형식’에 관한 입론으로 촉발되었다. 공간은 단순히 문학의 배경 요소나 제재 층위에서가 아니라 문학적 사유를 구성적 개념으로 전환하는 단서가 이로써 형성된다. 공간적 사유는, 영역을 구획하여 경계를 지음으로써 현상을 고정된 실체의 틀에 가두는 장소적 사유와 달리, 경계를 해체하고 영역 간을 가로지르는 개념으로 형성되는 구성체에 관한 사유다.

문학이 현상으로 드러나는 데 관여되는 제 기제의 역학 관계를 염두에 둘 때, 가령 실체적 스토리에서 구성적 디스코스 층위로 문학의 관심을 옮기는 식의 방법적 개념을 모색할 수 있다. 사실의 가장(假裝)에서 가상실재의 모의로 문학적 제시의 관심을 이행하는 것도 문학의 공간적 사유의 한 구심이다. 아날로그 세계의 시간적 순차 현상을 사유의 디지털 회로에 대입시켜 분

절적 기호로 변환하여 이해에 부치고 이해의 공정 또한 분절적 사유의 바탕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학의 디지털 자질에 대한 관심이 공간적 사유의 한 구심임을 알 수 있다.

현상의 인과적 개념 도식이 자연의 아날로그 위상에 관여된다면, 상이한 영역의 것을 등식으로 환산하여 새로운 개념을 창출하는 은유적 사상(寫像)이 문학의 디지털 위상을 명증한다. 오늘날 디지털 매체를 통해 표현항과 이해항 사이의 거래에 부쳐진 텍스트가 부르는 문학적 소통의 여지는 문학의 공간적 사유에 대한 명징한 징후다.

주제어: 문학 공간, 공간적 사유, 공간 형식, 구성적 개념, 메타-제시, 가상실재, 디지털 자질, 은유, 공간횡단 사상, 영역횡단 사상, 창발적 사유.

1. 문제들

문학에서 공간에 대한 문제항은 제법 오래된 것처럼 보이고 일견 식상하거나 초보적인 질문을 들추는 것처럼도 보인다. 이를테면 시든 소설이든 극작이든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공간 정도를 얘기함으로써 실감과 개연성을 드높이는 기본적 설정 요소로 공간이 문제시되니 문학에 대해 논할 때 으레 물을 수밖에 없다고 여기거나 그만큼 굳이 묻지 않아도 될 만한 것으로 여긴 흔적이 짙다. 과연 공간 항은 문학의 요소에서 최일선에 등장하는 항이면서 이에 대한 논의의 중요도나 심도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취가 있었는지는 따지고 볼 일이다.

일견 ‘공간적 배경’이 공간과 문학의 관계 항에서 선뜻 떠오르는 것은, 문

학과 공간의 자질과 현상의 의미망에 대한 오해 또는 몰이해, 혹은 소박한 개념의 인상적 전제로 논점을 오롯이 세우지 못한 한계가 뿌리 깊다는 점을 반증한다. 이러한 정황에 대한 반향에서 이 시론의 원심력이 발생한다. ‘문학+공간’ 조합으로 파생되는 논항의 계열을 정리하기 위해 그 계보와 전망을 얻으려는 시론을 펴고자 하는 것이다.¹⁾

2. 근대 문학의 공간 형식

조셉 프랭크(Joseph Frank)는 근대 문학의 가장 돋보이는 특징으로 ‘공간 형식(spatial form)’을 제기한다.²⁾ 시간 예술이라는 문학, 그도 소설에서 시간적 순차 구성에서 벗어난 새로운 구성의 양상이 드러난 데서 근대 문학 자질의 주요 거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근대의 혁명은 일상을 지탱하던 순조로운 질서에 기생하는 상투형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된 일련의 기획들(events)로 촉발되었다. 자명하고 순차적인 기성 논리에 대한 인지적 반역이 근대적 사유를 추동하는 동력원이었던 것이다.

이성적 인간의 사유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어진 자연 현상의 순리에 대한 ‘방법적 회의’를 바탕으로 한 ‘성찰’이라는 인지적 전환을 요구한다. 생각하는 존재 이전의 상황에서야 자연 현상이 그 자체로서 자명한 실체로 전제되었겠지만, 사유와 의식의 주체로서 서기 위한 존재의 기획은 자명한 순리에 대한 의식적 반향과 성찰의 공정을 구동하는 데서 동력을 얻는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는 데카르트(R. Descartes)의 언명은, 자

1) 이 글은 낱말의 공과를 따지는 장이 아니라 공간 논점의 계보를 조망하여 지평과 전망[퍼스펙티브]을 제시하려는 장이므로 현황에 결부된 기존 논의의 공과에 대한 세부 논의에 지면을 소비하지 않으려 한다. 참고로 이 글은 국어문학회 2017년 상반기 학술대회에서 주제 발표한 글을 수정한 것임을 밝힌다.

2) Joseph Frank, ‘Spatial Form in Modern Literature’, *Widening Gyre*, Rutgers UP., 1963(저본은 1945년에 발표됨).

연스럽고 자명한 질서에 대한 인지적 여과가 새로운 근대적 가치의 구심에 있음을 명변하는 테제인 것이다. 이치는 더 이상 자연의 순리가 아닌 인간의 이성적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사유의 과정과 결과에 합당한 논리만이 인정된다. 자연의 순리라도 이성적 논리에 합당할 때에만 유효하다. 과학이 고도의 체계를 갖추어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는 타당한 방편이 된 것은 이러한 인지적 전환의 결정적 예시이다.

이성적 합리성에 바탕을 둔 근대적 인지의 지향은, 현상에 대한 분석적 산입과 의식의 조직적 구조화로써 최적화한 인지 회로를 통해, 세계를 미니멀한 환원 구도에 회부하는 데 있다. 이러한 구도에서 파생된 문학적 공정에 서라면 가령, 감정이 일어 증폭되는 과정을 선형적 순차 방식에 따라 표현하여 넘친 감정 그대로가 문면화된 문학적 결과가 도출되는 식의 수순이 진행될 수 없다. 대신 범람하는 감정을 추슬러 인지적 수용체에 환류하여 저장한 연후에 감성을 돌이켜 의미망에 회부하고 이를 객관화할 수 있는 표현 기제를 통해 드러내는 식의 공정이 진행된다. 이 공정에서는 감정의 범람이라는 단선적이고 즉자적인 표현 방식 대신, 상관물 등에 투사하여 감정을 재편하고 그 의미의 여지를 파생시키는 식으로 문학적 결구를 지으려는 방식이 유효하다. 이는 시간 순차적 공정이 아닌 공간 구성적 공정에 따른 인지 방식이다.

서사 장르의 경우도 인지적 전환이 일기는 마찬가지다. 영웅적 주인공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모험담이라면 일대기 형식으로 사건의 추이를 전하는 서사 구성을 취하는 편이 온당하다. 그런데 근대적 서사는 자기 발견이라는 계몽주의 테제에 발맞추어 이상향과 모순된 현실의 고통에 내몰린 ‘문제적 개인’이 직면한 상황적 아이러니에 관한 이야기가 주 궤도를 이룬다. 목표를 향해 전진하며 문제 상황들을 궤도난마할 수 있는 능력이 허황한 판타지임을 아는 근대적 주체로서는 모순된 현실 상황에 대한 성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안을 모색하는 태도가 절실하다.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고 앞날을 전망해야 하는 이들에 관한 이야기라면 시간 순차적 구도로 진전되는 양상을 떨 수만은 없으며 시간대가 역전되거나 교차되는 양상이 되기 십상

이다. 근대 소설의 구성이 공간 형식을 떨 수밖에 없는 까닭을 이런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

근대 문학이 공간 형식을 취하게 된 것은 인지의 근대적 전환에 따른 수순이다. 감정의 범람을 차단하고 합리적 방식으로 감정을 조율하여 개념화하는 데서 이른바 모더니즘 문학 중핵의 전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이와 연관된다. 감정을 이미지로 전환하여 형상화하는 것은 물론 경험이나 생각과 같은 인간 수행의 모든 국면을 개념화하여 이미지에 사상(寫像mapping)함으로써 형상으로 드러내는 데서 공간 형식이 안출되는 것이다. 문학이, 시간 순차에 기반한 예술 장르가 아니라, 공간화된 위상을 염두에 두고 살펴야 하는 예술 장르에 편입될 여지가 생긴 셈이어서, 근대 문학의 공간 형식을 문학과 공간의 조합 향에 대한 논의의 벼리로 삼음직하다.

한국 문학의 경우도 저러한 수순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전환의 도정을 엿볼 수 있다. 서구적 근대의 이념이 일제강점기 극도로 불균형한 역학 구도 속에서 급격히 이입된 터라 그 정황들에 대해 더 미시적인 성찰을 더할 여지가 없지 않지만, 근대 문학으로의 전환 국면에서 서구 문학의 전환 국면에 비견되는 양상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가령 신소설을 필두로 진전된 근대 소설 형성 과정의 대표적 소설 여러 편에서, 서사적 미장센(mise-en-scène=설정)과 구성의 양상을 통해 드러난 공간에 대한 관심과 공간 형식의 구현 흔적을 어렵지 않게 엿볼 수 있다.

해가 인왕산 마루턱에 걸렸다. 종로 전선대 그림자가 길게 가로누웠다. 종현 천주당 뽕죽탑의 유리창이 석양을 반사하여 불길같이 번적거린다. 두부 장수의 “두부나 비지드렁” 하는 소리도 이제는 아니 들리게 되고 집집에는 앞뒷문을 활짝 열어 놓고 한 손으로 땀을 씻어가며 저녁밥을 먹는다. 북악의 황토가 가로썬 햇볕을 받아 빨간빛을 발하고 경복궁 어윈 늪은 나무 수풀에서는 저녁까지 소리가 시끄럽게 들린다.³⁾

위는 이광수의 『무정』 한 대목인데 새로운 서사 시퀀스가 시작되는 부분

3) 이광수, 『무정』, 한국소설문학대계 2, 동아출판사, 1995, 240~241쪽.

이다. 본 이야기를 곧바로 시작하지 않고 이야기의 무대가 될 공간의 형상 요소들로써 제법 실감 있게 기술된 장면은 전대 서사체의 모두(冒頭)와 사뭇 변별되는 지점이다. 전쟁 후 평양성 안의 모습을 기술하며 시작하였던 「혈의 누」의 모두와도 그 형상의 구체 양상 면에서 차이가 있다. 한여름 저녁녘 도시의 풍광을 구상적 대상을 앞세워 감각적 표현을 구사하여 기술한 이 대목을 통해 이야기 무대의 실감이 북돋워진다. 특히 시간의 경과 양상을, 두부장수의 호객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고 집집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고 하여, 공간 지표로 환언하여 서술한 점이 이채롭다. 감각의 전이 양상이기도 하며 시간의 공간화 양상이기도 하여 공간 형식의 한 국면이 이처럼 지어진다 고 해도 좋은 것이다.

이와 같이 시간의 흐름을 공간 이미지에 대입하여 서사를 진전시킨 국면이 비단 몇 문장 수준에서 단편적으로 적용되는 데 그치지 않고, 신문 연재한 회의 반 가량 되는 분량에 달하는 것만으로도 서사의 공간 형식 국면을 여실히 입증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실감의 정도 면에서도 단지 실제 지명이 거명되었다거나 하는 수준만이 아니라 관여된 인물들이 공간을 지각하는 감각적 표지들이나 인지 지표들에 투사되어 드러난 형상 수준에서 실제 감각의 본색이 드러나는 수준이다. 이렇듯 서사적 미장센의 구성이 서사의 진전에 기여함으로써 전시대의 서사체에서 찾기 힘든 공간 형식의 국면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김동인의 소설에서는 이러한 면모가 더 두드러진다. 가령 「감자」의 모두에서 “싸움, 간통, 살인, 도둑, 구걸, 징역, 이 세상의 모든 비극과 활극의 근원지인 칠성문 밖 빈민굴”이 무대로 설정되는데, 기자묘 술밭에서 복녀가 송충이 잡는 일을 하는 장면과 중국인의 채마밭에서 감자를 도둑질하다 왕서방에게 붙들려 사건의 반전이 조성되는 장면에 이르기까지, 이야기의 진전에 공간의 전환이 결부되어 있다. 특히 ‘평양성 안, 칠성문 밖, 기자묘 술밭, 왕서방의 집’이 대조적 형상으로 그려져 각 공간이 단순한 배경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의미망에 모종의 작용을 하는 설정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를테면, 평양성 안에서 근근이 생활하던 복녀네가 칠성문 밖으로 밀려

나 연명조차 어려운 처지가 되었는데, 기자묘 솔밭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사정이 호전된다. 기자묘 솔밭에서도 송충이 잡는 일을 하는 ‘나무 위’와 일하지 않고도 품삯을 받고 빈둥댈 수 있는 ‘나무 아래’가 공간적 대조를 이루는데, 복녀도 나무 위에서 내려와 감독이 부르는 대로 “저 편”으로 따라간 후에 “일 안 하고 품삯 많이 받는 인부”가 된다. 그 곳에 이른 다음 일 년이 지난 후, 복녀 부부는 더 이상 곤궁하게 생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러던 것이 왕서방네 채마밭에 감자 도둑질을 가 왕서방에게 붙들리게 되고 왕서방의 집에 들어갔다 나온 후에는 “빈민굴의 한 부자”로 생활하기에 이르른다. “복녀의 도덕관 내지 인생관”이 벌써 솔밭 나무 아래에서부터 변한 만큼, 경제적 형편이 호전되는 대신 도덕적으로 나라에 떨어지고 만다는 서사적 전언이 이러한 공간의 대조 양상에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급기야 경제적 풍요를 보장한 공간인 왕서방네 집에서 복녀는 최후를 맞고 마는 반전이 빚어진다. 삶의 행복 지표가 상승하여 최고조에 달한 정점에서 죽음으로 급전강하한다는 구성이 서사적 공간 형식의 한 양태로 기억될 만한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현진건의 「운수좋은 날」도 눈길을 끄는 사례다. “오래간 만에도 닦친 운수 좋은 날”이 공간의 이동에 따라 펼쳐지되 운수가 점층된 형상으로 나타나면서 고조된 감각을 부르지만, 그 좋은 운수의 극점에 가장 불길한 운수가 자리잡고 있었다는 중국의 설정에서 드러나는 아이러니 구성이 흥미롭기 때문이다. 모두와 결말 사이에 형성된 아이러니 구도 자체가 구성상 공간 형식의 위상을 명증한다. 행운이 고조되는 상승 곡선에 불행의 상승 곡선이 겹쳐진 채 극점에 다다랐음을 깨닫는 순간,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구조적 모순에 빠진 현실의 비극을 극화하고자 한 서사적 지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것 또한 공간 형식의 작용이다.

조선의 당대 현실을 ‘공동묘지’에 빗대면서 냉소와 자조가 극에 달한 의식을 드러내는 염상섭의 「만세전」과 같은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부조리한 현실에 담대히 대항하지 못한 채 그 일그러진 형상을 일그러진 의식에 투사하여 냉소적 언설로 표현함으로써 당대 지식인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현실의 모습을 대유적 공간 형상으로 드러내어 우의적으로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다.

젊은 사람들의 얼굴까지 시든 배춧잎 같고 주눅이 들어서 멀거니 앉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벌붙는 듯한 친한 웃음이나 ‘헤에’ 하고 싱겁게 웃는 그 표정을 보면 가엾기도 하고, 분이 치밀어 올라와서 소리라도 버럭 질렀으면 시원할 것 같다.

‘이게 산다는 풀인가? 모두 뒤흔겨 버려라!’

찾간 안으로 들어오며 나는 혼자 속으로 외쳤다.

‘무덤이다!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다!’

나는 모자를 벗어서 앉았던 자리 위에 던지고 난로 앞으로 가서 몸을 녹이며 섰었다. 난로는 꽤 달았다. 뱀의 혀 같은 빨간 불길의 난로 문 틈으로 날름 날름 내다보인다. 찾간 안의 공기는 담배연기와 석탄재의 먼지로 흐릿하면서도 쌀쌀하다. 우중충한 남뽕불은 웅크리고 자는 사람들의 머리 위를 지키는 것 같으나 묵직하고도 고요한 압력으로 지그시 내리누르는 것 같다. 나는 한번 휘둘러다보며,

‘공동묘지다! 공동묘지 속에서 살면서 죽어서 공동묘지에 갈까 봐 애가 말라하는 가뜰스한 백성들이다!’

하고 혼자 코웃음을 쳤다.⁴⁾

자학에 가까운 이런 언설에 공간 지각에 관여된 이미지가 빗대어져 있는 점은 당시로선 분명 이채롭다. 자의식에 투영된 현실의 모습은 공간 형상을 띠는데, 그 형상이 무기력한 처지나 죽음에 관여된 관념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들인지라, 종내 이런 현실을 두고 ‘공동묘지’라 하는 ‘나의 상념’이 부당하지만은 않은 것으로 용인된다. 눈에 띄지 않는 내면 의식을 가시적 공간 표지에 사상하여 드러내는 서술의 양상이 공간 형식의 또 한 국면을 이루고 있는 데 주목할 여지가 있기도 하다.

심리를 서술하여 서사에 산입하는 양상은 이전 서사체에서 보기 힘든 공간 형식의 단적인 징후이다. 이상의 소설은 그 시대에 이러한 징후를 가장 질게 내비친 예시들로 가득하다. 가령 「날개」에서는, 자의식에 비친 세계의 면모를 공간 표상들로 변환하여 제시하거나 기성의 세계와 다른 자질로

4) 염상섭, 「만세전」, 『삼대 외』, 한국소설문학대계 5, 두산동아, 1995, 640~641쪽.

구성된 새로운 공간을 기획하려는 의식 또한 극명하게 내비친다.

‘박제(剝製)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나는 유쾌하오. 이런 때 연애까지가 유쾌하오.

육신이 흐느적흐느적하도록 피곤했을 때만 정신이 은화(銀貨)처럼 맑소. 니코틴이 내 횃배 앓는 뱃속으로 스미면 머릿속에 으레 백지가 준비되는 법이오. 그 위에다 나는 위트와 파라독스를 바둑 포석처럼 늘어놓소. 가증할 상식의 병이오.⁵⁾

존재의 자유로운 비상이 가로막혀 억압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를 지경인 실존의 처지를 ‘박제’에 비유하여 제시함으로써 자의식에 비친 세계상을 공간 표상으로 환언하여 이야기의 모두로 삼고 있는 것은 적어도 당시로선 무척이나 이채로운 양태다. ‘정산·은화’, ‘머릿속·백지’, ‘위트·파라독스·바둑 포석’ 식으로 비정형의 개념이나 대상이 공간 이미지를 안은 정형의 대상과 은유적 사상 관계로 형상화된 점도 범상치 않은 진전이다. 이런 구도를 전제로 서술된 ‘나의 의식마저도, “연애까지가 유쾌하오” 하거나, “육신이 흐느적흐느적하도록 피곤했을 때만 정신이 은화처럼 맑소” 하는 식으로 일상적 상념의 흐름대로 진전되지 않으며, 종내 상식을 ‘가증할 병’이라고 규정하는 식으로 심상치 않은 의식의 편린을 엿보게 한다. 그만큼 상식만 용인되는 억압적 현실에서 일탈하여 상식에 얽매이지 않을 열린 공간으로 탈출을 도모하는 심산이 언술의 외연을 입어 ‘구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연 이상의 소설은 물론 시편들 거개는 순조로이 진행되는 상념을 기술하는 대신 단속(斷續)이 거듭되어 의미 연관을 순차적 일선에 배열하기 힘든 언술들로 이루어져 있다. 문자의 편린들을 조립하여 도상(icon) 형태를 빚어 제시한 경우도 있다. 자의식은 물론 저변의 무의식 층위에서 역동한 듯 뜻을 헤아릴 길 없는 무의미체들로 구성된 텍스트도 눈에 띈다. 그러니 이를 수용하는 인지 공정이 시간 순차적인 회로대로 진행될 수 없는 노릇이다. 최소한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텍스트의 곳곳을 파상적으로 오가는 공간적 수행에 기댈 수밖에 없는 셈이다. 기

5) 이상, 「날개」, 이상·김유정, 『날개/동백꽃 외』, 한국소설문학대계 18, 두산동아, 1996, 55쪽.

실 근대 문학 특유의 징후라는 공간 형식은 이러한 국면에 적용될 여지가 가장 큰 개념항이다.

3. 장소에서 공간으로, 실체에서 구성체로

공간 형식 논의에서 파생된 착안점 하나는 문학과 공간의 접점이 단순히 소재나 제재 차원에서 도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문학은 자명한 실체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제재와 구성은 물론 소통의 담론과 매체의 최적화된 조합이 이루어져 드러나는 ‘현상’이다. 문학에서 공간에 대해 논의하는 거점은 이러한 구성적 현상으로서 문학의 자질과 위상에 관심하는 데서 비롯된다.

공간(Raum) 개념 자체가 일정한 구획과 연장을 지닌 실체 개념이 아니다. 공간은 장소와 달리 영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여지의 확장[Ein-räumen]에 관여된 개념이다.⁶⁾ 가시적인 물리적 차원의 연장을 측량하여 산술할 수 있는 대상은 장소 개념에 대응되며, 감각·경험·사유 등과 같은 비가시적 차원이 더해져 의미 연관이 지어진 구성체가 공간 개념에 대응된다. 공간은 텅 비어 있는 태일 수도 의미 충만한 태일 수도 있는 가능태이다. 물리적 세계에서 발견되는 직시적 대상이라기보다 인간의 의식 세계에서 구성된 마음에 투사되어 차원이 구성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간은 문학과 같이 인간의 정신적 활동에 관여된 소산과 의미 연관을 맺기 쉽다. 인간의 의식적 또는 관념적 수행은 일정하게 구획된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경계를 넘나들며 영역을 가로지르는 횡단적 사유를 통해 구축되는 공간 수행의 국면에 부처진다.⁷⁾ 인지의 공간 위상을 바탕으로 인간

6) Martin Heidegger, *Sein und Zeit*, Max Niemeyer Verlag, 1972, S. 111 참조. 마르틴 하이데거, 이기상 외 옮김, 『건축함 거주함 사유함』, 『강연과 논문』, 이학사, 2008, 198쪽 참조. Yi-Fu Tuan, *Space and Pla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77, pp. 51~52 참조.

의 문학적 요구와 문학적 창발의 가능성이 확증되고 확장된다는 데 주목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문학은 공간적 심성의 진진된 양상을 수렴하기에 적당한 수용체(container)이다.

문학은 태생적으로 공간적 수행의 빛나는 사례이다. 인간의 사유와 감성이 자연이나 대상, 인문적 현상에 투사되어 모종의 의미 연관이 형성되는 과정 자체가 공간적인데 문학적 수행은 그러한 공간적 인지 회로의 구동이 중층화된 양상을 띠는 만큼 고도의 공간 기획 역량을 방증하는 인간 활동의 정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학은 현상에 대한 즉자적 이해와 단선적 반응의 회로에 부치는 수행이 아니라, 현상을 경험과 사유, 감각 등에 비추어 인지 더미로 진행된 후 그 의미를 환산하는 회로를 구동하여 얻은 의미 더미에 다시금 미적 차원을 더하는 표현의 최적화 공정에 환류하여 텍스트를 산출하는 수행이다. 그만큼 인간의 공간적 인지 수행을 가장 적극적으로 명면하는 예가 문학이라 할 수 있다.

세계에 대한 문학적 사상(寫像)을 통해 세계를 재편·재구성할 수 있는 역량은 인간의 창발적(emergent) 사유와 공간횡단 사상(cross-space mapping)⁸⁾형 인지를 통한 창조적 수행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힘이다. 마음 공간(mental space)⁹⁾의 창출과 확장 기제가 이로써 동력을 얻는다. 인간의 마음이 무한한 창조력을 안고 있어 그 자체로서 무한히 확장 가능한 잠재력을 지닌 것은 마음이 공간에 상응하는 구성적 개념일 개연성과 무관하지 않다. 상이한 영역의 것을 사상하여 등식 관계에 둘 수 있는 여지는 새로운 개념 사상(寫像)의 원천을 깊고 넓게 하는 밑바탕인데, 이가 마음의 중요한 기제적 기능이라면 우리가 '공간'을 상정할 수 있는 온당한 저변 자체가 마음 공간의 설정 가능성에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같은 일이나 대상이라도 다른 의미망에 부쳐 새로운 가치를 지을 수 있는

7) Gilles Fauconnier & Mark Turner, *The Way We Think*, Basic Books, 2002, p. 49 참조.

8) 위의 책, 41쪽 참조.

9) 위의 책, 102~130쪽 참조.

창의 능력의 발현이 인간 문명의 고도화를 부추긴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 입증된 바다. 인간의 마음이 공간 자질을 안고 있거나 마음이 곧 공간 개념의 경로이며 공간에 관여된 개념들이 마음에 투사되어 의미 자질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통해, 마음 공간과 창의적 수행 사이의 관여성을 어렵지 않게 수궁할 수 있다. 창의적 수행의 단말에서 긴요한 역할을 하는 문학적 수행의 결실들이 마음 공간의 확장 가능성을 드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 온 만큼, 공간의 문학적 사유의 지평은 꽤나 뚜렷한 편이다. 문학은 창의적 기획의 표나는 기체로서 마음 공간의 중요한 구심을 점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문학은 현실 조건의 한계 속에 억눌린 인간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기능을 하는 유력한 매체이기도 하다. 환언하자면, 문학은 시간의 굴레에 묶인 인간적 수행의 한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영역으로 도약하게 하여 생활과 사유의 영역을 정신적 차원에서 확장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맥락에서도 문학은 공간 수행의 중요한 거점으로서 원심력을 발휘하게 하는 동력원이다. 시간적 조건에 매인 인간 실존을 억압하는 현실적 장소에서 벗어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공간 기체로서 문학의 역할이 인류 문화사의 상당 기간 동안 이어져 왔던 것이다.

인간적 열망이 투사된 판타지는 저러한 문학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문학의 원형질을 이루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마음먹은 대로 진전되지 않는 현실의 한계에 봉착한 이들로써 자신의 이상을 향한 도약을 가로막는 벽을 넘어 서려는 열망과 의지를 발동하는 것이 부당할 리 없다. 현실과 이상의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세계로 이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삶의 진전을 가능하게 하는 의지를 더한다. 판타지 자체가 실상은 아니지만, 이상에 다가서려는 사람들의 의지에 힘을 보탬 여지는 다분하다. ‘경계와 이행’은 실락원(paradise lost) 처지의 인간 누구에게나 부과된 과업이다. 판타지 없이는 삶의 진전을 도모할 수 없다. 인간 열망의 투사체로서 문학의 역할은 현실 너머의 자유롭고 드넓은 마음의 공간으로 사람들을 이행할 수 있게 돕는 데서 최적화된다.

근대의 리얼리즘 문학이라고 해서 그 입장이 다르지는 않다. 리얼리즘이 문학적 판타지의 기능을 부정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오산이다. 리얼리즘 문

학에서 전제된 모티프의 거점이 현실에 있다는 점에서 이가 전대의 판타지 장르와 궤를 달리한다는 생각에 이론의 여지는 없다. 그런데 인간이 직면한 현실이란 인간 본연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모순 투성이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용인하지 않고 본연의 가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 문학이 할 역할이다. 문학에서 구현할 실재(real) 세계는 부조리한 실제(actual) 세계가 아니다. 현실의 모순이 해소된 세계가 실현된다면 바랄 나위 없지만, 적어도 그런 실제 세계의 형상을 보아 의식할 수 있다면 현실의 문제를 바로잡을 전망을 세울 수 있는 법이다. 문학은 그러한 전망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긴요한 매체이다. 현실의 직시적 형상을 투영한 카메라 렌즈의 반대편에 역상으로 그려진 이상향의 형상이 인간적 열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맥락에서 문학은 공간 기제이다.

이처럼 문학의 공간적 사유의 한 국면에서 판타지 문학과 리얼리즘 문학의 함수 관계를 확인하여, 실제적 대립 구도를 세워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게 하는 담론적 실천의 부정적 징후들을 들출 수 있다. 사실과 허구, 현실과 이상의 양단을 상정하고 허황한 실체를 전제하여 중심 가치를 상정한 뒤 이를 편들게 하는 인지 틀(frame)을 해체하는 일은 수순이다. 현실과 문학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련 여부를 따지는 일이 아니라도, 가령 전통과 근대의 경계, 농촌과 도시의 경계, 산업 사회와 정보 사회의 경계,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경계, 현실과 이상의 경계, 삶과 이념의 경계, 의식과 감성의 경계 등등, 과도적 이행에 관여된 문학적 주제를 구심으로 성립할 논향이 수다하다.

물론 이러한 국면들의 사례를 낱알이 살피는 것은 규모가 큰 논의의 여지를 남기는데, 이 글에서 그 면면을 다 언급할 필요는 없다. 이 항과 관련하여 중요한 관건은 문학에서 실체 개념을 걷어 내고 구성적 개념 계열로 사유하는 것이라는 생각의 단서를 제시하는 데 그쳐도 좋을 것이다. 문학의 공간적 사유는 과정적·구성적·인지적 개념으로 문학 현상을 이해하는 퍼스펙티브에 수렴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정서적·의식적 굴곡의 형상적 투사로 드러나는 이미지의 향연이 문학의 남다른 외연이라면, 경계를 넘어 영역 사이를 가로지르며 자유롭고자 하는 인간적 열망을 투사

한 공간의 기획이 문학의 남다른 함의다. 문학의 공간적 사유의 또 한 국면은 이와 같은 탈주의 공간 기획에 관한 항이다.

4. 스토리에서 디스코스로, 사실에서 가상실재로

같은 이야깃거리라도 같은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서사적 수행의 전략들이 파생된다. 서사란 단순히 제재 층위의 스토리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의 구성과 서술, 이해에 걸친 소통과 매체 활용 등에 관여된 개념 술어이다. 이는 자명한 실체를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므로, 서사가 있다. 없다, 서사가 약하다 등과 같은 시쳇말에 기댈 수 없다. 같은 이야기라고 다 같은 수준의 이야기 효과를 내거나 자명한 가치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야기의 제재는 그것이 실제로 벌어진 일이든 사실처럼 꾸며낸 이야깃거리든 실로 벌어진 사건으로 전제해야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 그 사건은 일련의 수순과 인과 관계로 나열할 수 있는 더미로서 그 자체로서는 시간적 순차 구성에 부합하는 흐름을 지닌다. 모든 사건은 시간 개념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객체로 전제된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을 서사적 제재로 환언하여 서사적 구성에 부처 재편 할라치면 시간적 개념이 무색해지게 마련이다. 구성(composition)은 말 그대로 일련의 대상이나 현상을 공통의 항에 대입하여 공시태로 환원하여 다음 절차를 예비하는 공정이다. 시간 순서에 따르든 인과적 배열을 따르든 시간 개념이 부여된 통시적 사건이 구성 공정을 거쳐 공간 개념으로 환치되는 것이다. 최종 서사체가 산출되기까지 구동되는 서사 공정은 기본적으로 공간화 기제가 작동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구성을 텍스트로 변환하여 단말의 서사체를 산출하는 담론 공정은 더욱 정밀한 공간화 기제를 적용하여 이루어진다. 제 아무리 좋은 구성이라도 뼈대만 앙상한 이야기 그대로이거나 온전히 형체를 입히지 못하고 단장하지

못하여 속이 훤히 드러나는 이야기라면 온당한 호응을 부를 수 없는 법, 문체 효과를 드높이고 이야기의 진면을 최적화하여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담론 공정은 서사 텍스트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최상의 장치를 작동시켜 진전된다. 좋은 서사의 관건은 제재나 구성 면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담론 면에서 찾을 수 있다. 소통을 활성화하여 의미의 여지를 더하는 것이 담론의 관건인 만큼, 문자 텍스트로 유통되지만 소통의 장에 부쳐지는 것마냥 가상의 담론 장이 열리는 정황을 모의할 수 있다. 일방적인 이야기가 아닌 대화적 상황에 회부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가상실재(virtual-real) 상황이 문자 매체를 통해서 구현될 수 있도록 서사적 소통 회로에 유념하여 다각의 담론 전략을 지을 수 있는 것이다. ‘문체(style)’는 그 중요한 국면이며 이는 계열적(paradigmatic) 선택과 통합적(syntagmatic) 배열의 좌표에 귀결되는 것인 만큼 공간화 국면에 관여된다.¹⁰⁾ 독자의 반응에 관련된 차원이 대입될 때에는 평면이 아닌 다차원의 공간에 관한 입론으로 생각의 여지를 넓혀야 하는 정황이 조성되기도 한다.

이처럼 서사 공정은 시간적 서사 제재의 공간적 재구성과 재편으로써 일차 진전되고, 그리 산출된 서사체를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서사적 거래에 부치는 과정에서 이차 진전된다. 그러므로 서사는 자명하게 주어진 실체가 아니며 과정적 구성 개념으로서 공간 현상이다. 하나의 이야깃거리가 다양한 양상으로 구성되고 그보다 더 다양한 담론 양상으로 산출된 텍스트들이 수용과 반응에 회부되어 단말에서 다양한 의미체로 드러나기까지, 서사는 그 공간 위상이 거듭 공고해진다.

물론 이러한 정황은 서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서정이나 극 장르의 경우라도 제재에서 단말의 텍스트에 이르기까지의 공정에서 드러나는 공간 현상은 뚜렷하다. 사람의 정서와 감각에 관여된 서정적 제재의 경우는 그 자체로서 공간 국면에 근사하며, 극적 상연 상황을 염두에 두자면 극 장르는

10) 이를테면 작가들은 하나의 문장이라도 서사 담론의 효과를 최적화하기 위해 서술 층위에서 선택과 배열의 공정에 심혈을 기울이게 마련이며 그 결실이 문체의 차이를 자아낸다.

서정이나 서사와 달리 애초에 공간 예술로 분류된 터라는 점을 고려해도 좋다. 다만 어떠한 문학, 나아가 어떠한 예술 텍스트라도 제재만으로 즉시 드러나는 실체가 아니며 구성과 담론 공정을 통해 그 모습이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 개념화할 여지가 있어서 이렇듯 부언해 두는 것이다. 문학은 공간 현상이다.

이 맥락에서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라는 항에 대한 관심이 새삼스럽다. 이야깃거리를 적절히 구성하여 종내 소통에 부칠 수 있는 텍스트로 변환하기까지,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는 개념이 중언부언은 아니다. 스토리를 텔링하는, 곧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수행은 기본적으로 이야기의 장이 형성되어야 이야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국면과 연결된다. 이야기는 나누어야 성립할 수 있으므로 그 대화적 자질을 장르적 본질로 설정하여 소설에 대한 논의의 중심으로 삼았던 미하일 바흐친(Mikhail Bakhtin)의 입론을 떠올려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문학의 공간적 사유의 한 국면을 설명하는 개념이며 이야기의 장이 삶에 편재하므로 공간적 사유의 방편이 편재함이 확증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서사 구성에 관한 개념어인 공간 형식에서 나아가 서사 담론에 관여된 개념을 바탕으로 공간 현상과 서사 현상 단말의 접점을 찾을 여지가 생긴다. 스토리에서 담론으로 서사론의 관심이 이행함에 따라 서사제시[*-lepsis]에 관한 술어를 재편할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맥락이 이러한 여지에서 조성된다. ‘어떻게 이야기하는가?’에서 나아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또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하는 물음 등에 결부된 서사 담론의 공간 접점에 대해 궁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서사 행위는 워낙에 이미 벌어진 일을 떠올려 이야기하는 것인지라 사후에 제시하는 방식이 기본이다. 모든 이야기는 이미 벌어진 사태를 정리하여 조리 있게 구성한 것을 바탕으로 전해질 수밖에 없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추정하여 이야기할 수 없으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일이 벌어진 상황을 거슬러 간 시점에서 일의 추이를 이르는 것이 이야기 방식의 본색이다. 다만 이야기를 전해 이해를 부르

는 서사적 소통 과정에서 제시 방식을 달리 모의할 수 있다. 이를테면 사건의 전모는 이미 정리되어 있는 만큼 사건의 추이에 맞춰 순차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시간 순서에 구애됨 없이, 회고하듯이 제시하거나 미래를 미리 예견하듯이 제시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서사 전개 방향 구도를 짤 수 있는 것이다. 때로는 마치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사건의 현장을 극화하듯이 제시할 수도 있어, 서사적 시간의 배열 방식을 반드시 사건의 순차적 추이에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서사 제시 방식의 양측은 ‘사후제시(analepsis)’와 ‘사전제시(prolepsis)’이다. 일이 벌어진 이후에 이야기하는 방식은 사실에 부합한 이야기를 펼치는 데 적합하며, 일어날 일을 미리 예견하여 이야기하는 방식은 허구적 이야기의 정황을 조성하기에 적합하다. 서사는 사실과 허구를 양단으로 한 스펙트럼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대체로 사후제시와 사전제시를 잘 조율하여 적절한 효과를 낳는다. 온전히 사실 그대로만 이야기할 수는 없으며 허구일수록 사실인 양 이야기하려 든다는 점 등을 고려하자면 서사 제시의 양상은 통상의 서사 공정에서 어느 한 방식이 단선적으로 적용되거나 양단의 어느 편에 일방적으로 치우치는 법 없이 채용되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서사 제시 방식은 어떤 경우라도 공간 자질을 안을 수 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실과 허구의 임계에서 드러나는 가상실재의 제시를 위한 메타제시(metalepsis)의 방식에서 서사의 공간 자질은 극대화된다.¹¹⁾ 시간 개념에 구애되지 않는 상념의 차원들은 사실 편에도 허구 편에도 편입되지 않으므로 이를 공간 개념을 바탕으로 기획하려는 의중에서 최적화한 서사의 양상이 드러난다. 가상이지만 실재에 근사하며 실재와 흡사하지만 가상일 수밖에 없는 서사의 본색을 명증하는 서사 제시의 방식을 상정해야 하는 이유가 이러한 정황 맥락에서 제기된다. 역사를 서사로 재편하는 경우나 판타지에 역사의 외연을 입혀 개연성을 더하는 경우 모두가, 사실과 허구 사이의 장력을 조율하려는 수행이 공간적 사유의 역학에 놓여 있다는

11) 장일구, 『가상실재적 서사공간의 기획과 메타제시(metalepsis)』, 『시학과 언어학』 제22호, 시학과언어학회, 2012, 299쪽 참조.

점을 방증한다. 역사라는 시간 개념이 부르는 일련의 순차적 관념을 공간화하는 서사적 형상 창출의 회로와 기제에 대한 사유가 가상실재적 서사의 향연이 펼쳐지는 디지털 문화 장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정황이 이러한 지평에서 부상한다. 메타제시는 이러한 서사의 위상 변이를 온당하게 명변한다.

기실 사후제시로 사실성을 확보하기에 적당하고 인과성과 개연성을 살리기에는 역사적 사건만한 제재가 없다. 그런데 역사적 제재라고 해서 꼭 사실에 근사한 구성을 짓고 실감 넘치는 담론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만은 아니다. 역사적 사건을 다루었는데 사실에 부합하니 역사를 왜곡했니 하는 식의 논쟁을 벌이는 일은, 서사를 제재 층위에 한정하여 실제로 전제하는 완고한 이념 틀에서 파생된다. 담론적 효력을 낳기 위해 구성과 서술, 매체의 활용 면에서 다각적인 창안을 모색하고, 다 아는 이야기지만 재미와 감동, 혹은 남다른 의미를 찾으려 하는 수용의 역학이 서사적 거래(narrative transaction)¹²⁾의 동력원이다. 그 누구라도 같은 이야기거리를 다룬다고 해서 여일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는 당최 기대하지 않는다. 실감만이 감동의 전부는 아니며 흥미진진한 긴장감만이 재미의 전부는 아니다. 그 누군가는 진지한 사유의 장에 던져지길 바랄 수 있으며 그 누군가는 같은 사건이지만 다른 시각의 해석을 엿보고 싶어 할 수 있다. 재미의 양상도 규정할 수 없고 아름다움의 가치도 어느 한편에서만 판단할 수 없다. 서사적 거래는 역동적 국면에 부쳐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더욱 메타제시를 통한 가상실재의 서사적 구현의 의미심장한 편이다.

역사의 왜곡과 서사적 재편 사이의 경계에 대한 섬세한 가치 판정이 요구되는 때 메타제시로 수렴되는 서사의 가상실재 자질과 그 역능에 대한 이해가 특별히 긴요하다. 이들의 연원은 역사적 시간의 서사적 시간화 곧 서사공간의 창출에 있다. 서사공간은 사실·역사와 허구·문학의 양단을 나누고 어느 한편의 가치를 옹호하려는, 특히 사실·역사의 편에 중심을 두려는 담론적 실천과 궤를 달리한다. 사실이든 허구든 서사 텍스트로 변환되는 과정에서는

12) Patrick O'Neill, *Fictions of Discourse: Reading Narrative Theory*, Toronto UP., 1994, p. 77.

둘 가운데 어느 하나의 편으로 가치나 의미가 온전히 몰릴 수 없다. 사실이라든 서술 과정에서 사실 전역이 오롯이 반영되어 사실만 기술한 서사체로 변환될 수는 없으며, 허구일수록 실감을 모의하여 서사적 개연성을 드높이려 하며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서술 매체인 ‘언어’를 통한 소통의 여지를 염두에 두고 보면 전면적으로 허구인 서사체가 산출될 리 없다. 서사가 의사소통의 한 방편으로서 존립하는 한 사실과 허구 어느 양단에 선 서사체는 허망하고 무색한 관념적 실체에 불과하다. 서사는 삶의 장에 투사된 현상으로서 드러나며 삶의 과정에서 두루 쓰여 의미가 지어지는 구성체로서 그 가치가 집산된다. 삶의 다단하고 복잡한 국면들을 의미화하는 공간 기체로서 인간 수행의 중요한 거점인 것이다.

이처럼 서사를 통한 공간 기획은 메타제시를 통한 가상실재의 구현에서 최적화된다. 기실, 매체의 여과를 거쳐 산출된 서사 텍스트는 그 자체로서 가상실재 텍스트에 상응한다. 실제 세계의 대상이나 현상과 유연적 관계가 없는 기호나 아날로그·디지털 신호의 조합을 통해 그 대상이나 현상에 근사한 이미지를 마음에 부름으로써, 실상과 엄연히 관계 없지만 실상이 사상된 개념을 불러 일으키는 가상실재 형상이 구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상실재적 개념 사상은 서사의 공간 형식이나 현실 세계의 차원을 재구성한 서사공간 기획의 구심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차원들로 구성된 가상실재 텍스트를 과생시키는 원심이다. 현실 세계의 시간적 질서와 다른 공간 위상이 서사 공정을 통해 정립되는 것이다.

이러한 서사의 공간 기체를 통해 디지털 서사의 가능성과 서사에 내재한 디지털 자질의 본색을 밝히 볼 지평을 가늠할 수 있다. 완전한 실화나 완전한 판타지로서 닿을 수 없는 인간사의 디지털 국면들이 그것이다. 오늘날 문학적 체험이 다양한 고성능 디지털 단말기를 통해 차원 다른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서사적 수행 자체가, 시간적 순차를 본색으로 하는 아날로그 세계를 디지털 텍스트로 재편할 때 구현되는 공간 기획에 수렴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특히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지어지고 디지털 단말을 통해 소통되는 서사 텍스트가 가상실재의 구현을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사적 메타제시로 구현한 가상실재의 세계와 서사공간 기획의 접점에 대한 사유의 여지를 드넓힐 수 있다.

이러한 메타제시의 국면들을 잘 보여 주는 예시는 이승우의 소설에서 적잖이 찾을 수 있다. 「미궁에 대한 추측」을 비롯하여, 사실과 허구 어느 편으로 환원될 수 없는 가상실재 효과를 창출하는 메타제시의 국면을 여실히 보이는 서사적 결구들이 그의 소설에 편재한다. 그의 이름을 인상적으로 알린 『에리직톤의 초상』은 교황 저격 사건에서 착안하여 사실과 허구의 경계가 모호한 이야기를 전하는 만큼 얼른 떠올릴 수 있는 텍스트다. 여러 나라에 번역 출간되어 작품성을 꽤 인정 받은 『생의 이면』의 경우, 자전적 소설로 정평이 나 있는 만큼 작가의 원체험이 제재를 이루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실은 사실인 양 꾸며진 이야기거리가 상당 부분 산입되어 있다. 그런데도 제재 층위에서는 사실적인 인상을 주는 것은 허구라도 개연성을 더하는 구성의 묘를 잘 살린 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서사 세계의 메타 층위에서 당해 서사에 대해 진술하는 메타제시를 통해, 가상이면서도 짐짓 실상인 듯 모의하는 언술의 작용 효과가 더해진다고 할 수 있다. 서사 내부의 인물과 내적 서사에 관여하는 서술자, 서사 내외 경계의 메타 층위에서 서사에 대한 서사에 관여하는 서술자 등, 서사 대리자들(narrative agents)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서술-공간(Erzählraum)의 역학 구도가 이런 국면 가상실재의 효력을 보조하고 있다.

가장 크게 흥미를 끄는 『끝없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길』은 가상실재 양상들을 빚어 내는 ‘담론의 허구(fictions of discourse)’¹³⁾ 전략이 적중되는 서사적 모의에 주목할 더 큰 여지를 짓는다. 이 소설은 다음과 같이 허구와 사실의 양단으로 향해 수렴점 없이 갈라진 길에 관한 메타제시로 시작된다.

사람들은 믿지 않을 테지만, 왜냐하면 나도 믿지 않았으니까, 광화문 한복판에 땅굴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¹⁴⁾

13) 위의 책, 6~8쪽 참조.

14) 이승우, 『끝없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길』, 창해, 2005, 11쪽.

실체가 불분명한 땅굴에 대한 풍문을 전격적으로 꺼내며 이야기를 시작하는 만큼 모두(冒頭)에서부터 독자의 인지 회로에는 혼선이 빚어진다. 인물이면서 서술자 역이 겹친 '나' 자신이 불신을 표하는 얘기이며 다수의 사람들 또한 믿지 않을 것이라 추정하면서도 그 풍문이 사실이라고 하는 언설을 앞세우는 통에 진실 공방을 촉발하듯 담론의 진위에 대한 인지적 혼선을 조장한 것이다. 그 만큼 모두의 첫 문장부터 서사 내적 사건에 귀속되는 서술이 아닌 서사에 대한 진술로서 메타제시에 상응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 문장이 매 장마다 처음 대목에 반복 변주되어 제시된다. 이 때문에 서사가 일정한 방향을 향해 진전되는 식이 아니라 소용돌이치듯 맴도는 형국을 띤다. 서사 진전에 연루된 서사 시퀀스의 계층들이 무색해지면서 공간 형식이 극대화된 식이다. 다음과 같은 언설이 반복 변주되어 서사를 나선형으로 조형하는 것이다.

사실이지만 진실은 아니다. 몇 개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몇 개의 사실들은 진실을 포섭하지 못한다. 때때로 우리는 진실을 감추기 위해 여러 개의 사실들을 늘어놓는다. 사실들을 나열함으로써 진실을 옹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다른 사실 속에 내장되어 있다.¹⁵⁾

위 인용 대목에 현시된 진술은 사실이 환상으로 환치되어 진실에 관여된 상념의 역학 구도가 전도된 경우가 빚어진다는 생각이 요체다. 가상실재에 대한 상념이 주제화된 이 진술은 메타제시의 전형적 예시로서 손색 없다. 이러한 서술 상황에서 서사는 단선을 따라 진전되는 시간 순차에 따르지 않고, 다기한 국면에서 서사의 선이 분기되고 다양한 의미향에 수렴되며 서사의 전모가 조형되는 식으로 공간 자질이 두드러진 위상을 얻는다. 메타제시는 메타-픽션 같은 실험적 서사체의 표층에서 드러나는 자기지시적(self-reflexive) 서사의 형식적 표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서사공간의 기획을 고양하여 가상실재의 창출이라는 서사 본연의 기능에 한층 더 밀착된 결실을 산출하는 원동력이다.¹⁶⁾ 그 동력에 힘입어 오늘날 서사가 다양한 매체의 차이나 경계조

15) 위의 책, 15쪽.

16) 「마녀의 스테레오타입에 대한 고찰」을 비롯하여 최계훈의 소설에서 빈번하게

차도 해체하는 지형이 빚어질 수 있는 것이다.¹⁷⁾

5.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인과에서 은유로

인간의 사고는 분절적 조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자연 세계는 그 대상이나 현상이 끊임없이 이어진 채 시간의 흐름에 내맡겨져 진행되는 아날로그 체계이다. 사람들은 이 세계의 조건과 환경, 이치와 원리 등을 따르며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다만 사람들이 자연 세계의 변화무상한 현상을 인지할 때에는 분절적 조작을 통해 디지털 방식의 부호로 변환하는 공정이 구동된다. 분절적 인지 방식의 단적인 발현 기제가 언어 매체이다.

언어는 사상(事象)에 대한 분절적 계열체들을 연결한 통사를 통해 자연스러운 흐름, 곧 시간 순차에 기반을 둔 자연 현상의 본질에 근사한 전개

발견되는, 능청스러운 메타제시의 담론 패턴과 도큐먼트와 픽션 사이의 장력을 통해 서사적 효력을 자아낸 가상실제의 서사 담론 양태는 이러한 국면에 명징한 방증을 더하기에 관심할 만하다.

- 17) 최근 개봉한 영화 〈덩케르크〉는 이런 맥락에서 신선한 충격을 안긴다. 역사적 사건을 서사공간의 공정에 산입하여 산출한 의미심장한 서사 텍스트로서 기억할 만하다. 연출자인 크리스토퍼 놀란은 출세작인 〈메멘토〉에서 서사 시간을 능수능란한 솜씨로 구성한 역동적 몽타주를 제시하여 그 연출력을 인정 받은 바 있다. 다차원으로 얽히고설킨 시공의 아이러니에 대한 기막힌 서사 형상을 보였던 〈인터스텔라〉에서 보여 준 시간의 공간화 공정의 정수를 '체감'하게 하여 그 서사장으로 관객을 던져 넣어 찬사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그러한 두 국면의 서사 담론 전략이 수렴된 영화가 〈덩케르크〉이다. '이것은 전쟁 영화가 아니다.'를 앞세우고서 전장의 실감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지만, 정작 전장에 관객들이 함께하는 듯한 극한의 긴장과 공포가 시청각의 감각에 밀착된 감성을 구현한 것이 인상적이다. 역사적 사실의 여실한 재현에서가 아니라 그 현장의 감각과 의미를 밀도 있게 투사함으로써 스크린과 객석으로 구성된 자리에 역사적 장을 모의하여 의식과 감성을 조율할 만한 가상실제 공간을 조성한 면이 그러하다. 놀란이 연출한 영화는 서사공간의 창출을 통해 매체의 경계가 해체되면서 서사 장르의 새로운 위상 도식을 가능하게 하는 소중한 단서들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논의의 장을 기약하기로 한다.

(development)를 모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언어는 자연을 인위적으로 모의하는 최적의 수단이다. 영상과 같은 비언어적 매체라도 대상이나 현상을 인지에 회부하는 매체라면 종내 사유의 회로를 이용하는 만큼 언어적 기호 공정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 사람들은 언어를 통해 사유하고 사유한 만큼 분절적으로 현상을 인지한다. 언어적 수행은 인간의 인지가 디지털 자질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 정황에 대한 중요한 방증이며, 자연에 처한 인간이 고도의 지적 체계와 문명, 문화를 이루어 세계를 재편할 수 있는 공간 능력에 대한 최일선의 표징이다.

이러한 분절적 조작을 통한 공간적 인지는 인간의 창발적 수행(emergent performance)의 거점이다. 인간은 주어진 자연 조건대로 대상과 현상을 일반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이해의 맥락과 인지의 조건에 따라 해체 재구성하여 의미 연관을 지음으로써 세계 이로운 환경으로 돌릴 줄 안다. 이로써 사람들은 자연 조건에 얽매이지 않은 새로운 영역으로 존재의 여지를 확장하여 새로운 차원의 공간을 창출하면서 진전한다. 이러한 인지의 공간적 디지털 자질이 원형질을 이룬 언어 수행의 정점에서 ‘은유’가 파생된다.

은유는 서로 다른 범주·영역의 대상이나 개념 등을 동질적 수준에 배열하고 정합 관계에 놓인 쌍으로 대응시킴으로써 새로운 의미 연관을 짓는 표현 방식이자 창발적 인지 기제 중 요긴한 하나다. 인간의 창발적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영역횡단(cross-domain)적 사유와 인지의 공간 공정이 은유에서 최적으로 적용된다. 자연적 유연 관계가 전무한 대상이나 개념, 감각끼리라도 은유적 사상(寫像)을 통해 의미 관계가 맺어짐으로써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주 층위에 포괄되어 새로운 질서가 빚어지는 것이다. 그 질서는 순차적 혹은 논리적 연관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도식(image schema)의 함수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적 질서이다. 문학은 이러한 은유적 사상(寫像)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므로, 문학이 공간 자질을 본색으로 한다는 점이 이로써도 방증된다.

은유적 사상 공정은 그 자체로서 문학과 공간 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항들의 창발 가능성을 제고하는 거점인 만큼, 인간의 공간적 수행에서 중핵

을 집한다. 물론 매체들을 가로지르는 일 또한 영역횡단적 수행의 가시적인 국면이므로 은유 공정을 문학에만 특화된 고유의 기제라고 실체화하는 우를 범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매체 간의 횡단적 사상을 도모하는 전략적 거점향으로서도 은유는 기특한 계기이다. 문학적 인지 창발의 보조 기제로서 긴요한 역할을 다하는 은유가 다른 매체와 문학 간의 사상을 본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신경계의 뉴런이 고립된 터라면 순조로운 인지 작용이 일수 없는 만큼, 인지에 관여된 공정 기제들이 이루는 인지 체계에서 이들이 고립되어 작동하는 것은 무의미하거나 불가능하기까지 하다. 인지의 사회적 네트워크 맥락마저 고려하자면, 인간의 창발적 인지 기제는 독립된 실체로서 상정되어서는 아무런 의미 함수를 엮을 수 없기에 무색한 것일 뿐이다.

이렇듯 은유로 엮이는 문학의 장르 네트워크는 공간 사유의 중요한 국면을 방증하는 것으로 은유가 삶의 방편으로서 편재한다는 사실¹⁸⁾과도 궤를 같이하면서 공간 기획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그런 가운데 은유 공정을 최적의 수단으로 적용하여 인간 정신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한 구심적 매체가 문학인 것은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할 점이다. 공간에 대한 문학적 사유의 정점에 은유적 사유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은유는 공간의 문학적 공정 방식의 으뜸이다. 다음을 보자.

땅에 떨어진 것은 무엇이든지 썩는다.

땅이 무엇을 거부하는 것은 본 일이 없다. 사람이나 짐승이 내버린 똥·오줌도 땅에 스며들면 거름이 되고, 독이 올라 욕을 하며 내뱉은 침도 땅에 떨어지면 삭아서 물이 된다.

땅은 천한 것일수록 귀하게 받아들여 새롭게 만들어 준다. 땅에서는 무엇이든지 썩어야 한다. 썩은 것은 거름이 되어 곡식도 기름지게 하고 풀도 무성하게 하고 나무도 단단하게 키운다.

썩혀서 비로소 다른 생명으로 물오르게 한다.¹⁹⁾

18) George Lakoff & Mark Johnson,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P., 1980, p. 6.

19) 최명희, 『혼불』 3권, 한길사, 1996, 14~15쪽.

통상 ‘자연스럽다’고 하거니와, 자연 현상은 순리에 따라 어긋남 없이 진행된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뜻밖에 이치에 어긋나고 논리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에 직면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두고 부조리하다거나 모순된다거나 역설적이라고 한다. 인간의 경험 범위 밖이거나 인식이 미칠 수 없는 미지의 현상이 대체로 그리 이해되곤 한다. 이를테면 사전이나 사후의 일을 경험할 수 없기에 그 전모를 인지할 수 없는 생명의 탄생과 죽음에 연관된 현상이 대체로 역설적 표상으로 제시되어 문학적 효과를 드러내는 것으로 인정된다. 위에 인용한 예시는 이런 정황을 잘 보인다.

씨앗은 썩어서 그 형체와 본색이 온전히 사라져야만 새로운 싹을 움트게 할 수 있다. 꽃이 시들어 지고서야 비로소 열매가 열린다. 알의 원형질이 굵아서 삭아 없어져야만 생명체가 부화할 수 있다. 이렇듯 생명의 탄생은 생명의 죽음을 전제로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자연의 순리이다. 그렇지만 논리적으로는 이를 모순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죽음은 생명이다.’는 모순 관계의 어휘를 등식 관계에 두었으므로 논리로는 위[F] 값이 부여된다. 자연의 이치에 따르면 진리치[T]가 부여될 현상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니 이 난항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은유는 그 난항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 서로 모순된 개념항의 등식을 세워 새로운 의미를 산출할 수 있는 은유적 사상 공정에 ‘생명/죽음’ 대립쌍이 대입되면 자연의 순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새 차원의 논리 맥락이 구성되며 ‘죽음은 생명이다.’와 같이 역설적 관념이 타당하게 용인된 개념 도식이 산출된다. 단순한 수사적 표현 기교로서의 역설이 은유적 개념 사상의 공정을 거쳐 제법 일반적인 범위의 언중 사이에서 엄연한 약호를 획득하여 문화적 차원의 명제로 전환되었다고 해도 좋다. 이는 삶의 예지를 차원 높여 시사한 것이어서 성원들의 수궁을 부를 여지가 큰데, 땅에 버려져 썩은 모든 것이 생명의 원천이 된다는 자연의 순리가 문화의 논리로 수용되는 양상을 명증한다. 나아가 위 대목에서 담론한 것처럼, 썩은 씨앗에서 새 생명이 움트는 현상에만 그치지 않고, 유사한 계열의 여러 대상이 그 본연의 속성마저 급전하는 양상을 통해 역설적 관념의 개념적 전환 국면이 심장하

다는 점이 부각된다. 요컨대 더럽고 쓸모없는 배설물조차도 땅의 순화 과정을 거쳐 사람에게 더없이 유용한 농작물을 키우는 데 쓰이는 거름으로 전환되며, 독이 오른 침도 땅에서 정화되어 물로 변환된다는 얘기는 역설에 역설이 중층을 이룬 은유적 사상의 회로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종내 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삶의 예지를 알려 주는 문화적 담론의 기제가 구동된다. 삶에 산재한 은유적 표현이 문학적 표현에 최적화되어 활용됨으로써 인지적 수용을 수월하게 하는 특질이 돋보인다. 그러면서도 상투적 표현과 상념을 뛰어넘은 거창한 사유의 응축태로서 은유의 자질을 명증함으로써 삶과 은유의 역동적 관계에 대해서 다각도로 논급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는 사례로 인정할 만한 것이다.²⁰⁾

이처럼 은유는 서로 다른 영역의 무연한 대상이나 개념, 또는 감각 등에 함수 관계를 부여함으로써 의미를 산출하여 새로운 계열체로 구성된 창작적 구조를 생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영역횡단 사상을 통한 인간의 인지적 혁신을 추동하는 동력원으로서 중대한 위상을 점한다. 문학이 이러한 은유를 최적으로 구동하여 남다른 가치를 기획하는 영역인 만큼 저렇듯 영역을 가로지르는 사상 활동의 제일 거점이기도 하다. 문학의 공간적 사유는 이러한 은유적 사상의 적극적 채용을 통해 진면이 더욱 부각된다. 문학의 공간적 위상이 더욱 선해지는 것이다.

6. 지평

공간은 자명하게 주어진 실체가 아니다. 문학도 모종의 외연과 질료에 일정한 내용이 담긴 형상 분명한 실체가 아니다. 그러므로 공간에 대한 문학적 사유가 실체를 전제한 제재 수준의 모사 관계를 묻는 데서 출발하거나 그 정도 전에 그칠 수는 없다. 가령 개연성을 위한 공간적 배경이나 현장감을

20) 장일구, 『문화+서사@흔불_α』, 전남대 출판문화원, 2017, 128~129쪽 참조.

살리는 무대 설정 등과 관련하여 공간에 대해 논의하는 정도는 ‘문학+공간’ 향의 극히 지엽적인 국면에 편입된다고 하거나, 아예 그 논항의 계보학에 비추어 본색과 배치되는 생각이라고 잘라 말할 수도 있다. 문학이나 공간 양항 공히 구성적 개념에 부처질 현상인 만큼 공간에 대한 문학적 사유, 혹은 역으로 문학에 대한 공간적 사유의 거점은 그 실체를 묻지 않고 구성 역학의 기제를 묻는 데 두어져야 한다.

공간 형식에 대한 근대 문학의 전유 국면, 구성과 담론에 대한 관심을 통해 확산된 문학적 인지 공정의 디지털 양상, 메타제시의 적용을 통해 구현되는 가상실재의 공간 위상, 공간·영역횡단 사상의 유력한 방식인 은유를 통해 적중되는 문학적 창발 등, 인간적 수행의 여러 장에서 조망할 수 있는 ‘문학+공간’의 너른 지평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의 문학장에서 각각의 국면들에 대응되는 문학의 공간적 사유의 실천 양상들을 여럿 확인한 바, 그 세세한 진면의 지층을 발굴하여 상응하는 개념항의 계열을 체계화할 계기와 바탕을 얻은 셈이다. 문학이 사람들의 창발적 사유의 동력원이 될 때 삶의 장에서 최선의 기능을 완수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문학과 공간의 접점에 대한 탐색은 문학적 인지 공정을 탐색하는 긴요한 지평이자 그러한 탐색이 수렴되는 구심적 논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은 왜 공간을 사유하는가. 또한 공간적 사유는 왜 문학을 부르는가. 창발적 횡단을 가능하게 하는 인지의 본색에 비추어 탐색할 여지가 넓은 물음이다.

참고 문헌

-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1:2, 민음사, 2002.
- 김병욱, 「한국 현대소설의 시간과 공간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 김성곤, 『탈구조주의의 이해』, 민음사, 1990.
- 김성곤, 『포스트모던 시대의 작가들; 미로속의 언어』, 민음사, 1990.
- 김성기, 『포스트모더니즘과 비판사회과학』, 문학과 지성사, 1991.
- 김윤식, 『한국근대소설사연구』, 을유문화사, 1986.
- 김윤식·김현, 『한국 문학사』, 민음사, 1998.
-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예하, 1993.
- 김현, 『문학사회학』, 민음사, 1987.
- 양진오, 『한국 소설의 형성』, 국학자료원, 1998.
- 이재선, 『현대소설의 서사주제학』, 문학과 지성사, 2007.
- 장일구, 『경계와 이행의 서사 공간』, 서강대 출판부, 2011.
- 최문규 외, 『기억과 망각—문학과 문화학의 교차점』, 책세상, 2003.
- 황도경, 「이상의 소설 공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야우스, H. R., 장영태 역, 『도전으로서의 문학사』, 문학과 지성사, 1986.
- 지마, 페터, 허창운 역, 『텍스트 사회학』, 민음사, 1991.
- 푸코, 미셸, 이광래 역, 『말과 사물』, 민음사, 1987.
- 푸코, 미셸, 이규현 역, 『성의 역사1, 앎의 의지』, 나남, 1990.
- 푸코, 미셸, 문경자·신은영 공역, 『성의 역사2, 쾌락의 활용』, 나남, 1990.
- 푸코, 미셸, 이혜숙·이영목 공역, 『성의 역사3, 자기애의 배려』, 나남, 1990.
- Casey, Edward S., The Fate of Place, California UP., 1998.
- Chatman, S., Story and Discourse, Cornell UP., 1978.
- Fauconnier, Gilles & Turner, Mark, The Way We Think, Basic Books,

2002.

- Feld, Steven & Basso, Keith H. (ed.), *Senses of Place*, SAR Press, 1996.
- Fish, Stanley, *Is There a Text in This Class?: The Authority of Interpretive Community*, Harvard UP., 1980.
- Frank, Joseph, *The Widening Gyre*, Rutgers UP., 1963.
- Gavins, Joanna & Steen, Gerard (ed.), *Cognitive Poetics in Practice*, Routledge, 2003.
- Genette, Gérard, Jane E. Lewin (trans.), *Narrative Discourse*, Cornell UP., 1980.
- Heidegger, Martin, *Sein und Zeit, Zwölfte, unveränderte Auflage*, Max Niemeyer Verlag, 1972.
- Herman, David, *Storytelling and the Sciences of Mind*, The MIT Press, 2013.
- Herman, David (ed.), *Narrative Theory and the Cognitive Sciences*, CSLI, 2003.
- Hillebrand, Bruno, *Mensch und Raum im Roman*, Winkler-Verlag, 1971.
- Hogan, Patrick Colm, *Cognitive Science, Literature, and the Arts*, Routledge, 2003.
- Johnson, Mark, *The Meaning of the Body; Aesthetics of Human Understanding*, Chicago UP., 2007.
- Kövecses, Zoltán, *Metaphor*, Oxford UP., 2010.
- Lakoff, George & Johnson, Mark,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P., 1980.
- Low, Setha M. & Lawrence-Zuniga (ed.), *The Anthropology of Space and Place*, Blackwell, 2003.
- Maclean, Marie, *Narrative as Performance*, Routledge, 1988.
- Malmgren, Carl Darryl, *Fictional Space in the Modernist and Postmodernist*

- nist American Novel, Associated University Presses, 1985.
- Malpas, Jeff, Heidegger's Topology: Being, Place, World, The MIT Press, 2006(The Amazon Kindle Edition, 2008).
- O'Neill, Patrick, Fictions of Discourse: Reading Narrative Theory, Toronto UP., 1994.
- Ricoeur, Paul, Robert Czerny (trans.), The Rule of Metaphor, Routledge & Kegan Paul, 1978.
- Rimmon-Kenan, Shlomith, Narrative Fictions: Contemporary Poetics, Methuen, 1983.
- Ryan, Marie-Laure, Narrative as Virtual Reality, Johns Hopkins UP., 2001.
- Ryan, Marie-Laure, Avatars of Story, Minnesota UP., 2006.
- Tuan, Yi-Fu, Space and Pla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77.
- Turner, Mark, Literary Mind, Oxford UP., 1998.
- Truner, Mark, The Origin of Ideas, Oxford UP., 2014.
- Turner, Mark (ed.), The Artful Mind, Oxford UP., 2006.
- Vallega, Alejandro A., Heidegger and the Issue of Space: Thinking on Exilic Grounds,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03 (Amazon Kindle Edition, 2008).
- Whitehead, Alfred North, Process and Reality, Harper & Brothers, 1960.

【Abstracts】

Spatial Insight of Literature, its Genealogical Aspects and Perspectives

Jang Il-gu

A positive interest in literary space was triggered by the agenda on 'spatial form' which Joseph Frank counted as the most significant feature of modern literature. Literary space is not a background element but a key clue for the constitutional thinking on literary phenomena. Spatial thinking is a way of cross-domain mapping and of deconstructing territories of substantial objects.

So the spatial thinking of literature is designed with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 notions on the dynamic mechanism in literary phenomena. From substitutional story to interactive discourse, from make-believe of actual world to simulation of virtual-real universe, from analog nature bound by linear time to digital text by segmental signal circuit and the like, literary phases would be shifted to the spatial dimensions. And the cause-and-effect logic could be substituted to the metaphoric processing for the creation of new image schema by mapping various concepts in different domains. Blend of cross-domain genre is an attractive index of spatial thinking of literature nowadays.

Keywords : literary space, spatial insight, spatial form, constitutional notion, metalepsis, virtual-real, digital features, metaphor, cross-space/domain mapping, emergent insight.

이 논문은 2017년 10월 3일에 투고되었으며, 2017년 10월 27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7년 10월 2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